

광주·전남 상장법인 시총 40조 넘었다...한전 상승 주도

지난달 40조5천억 달성...전월비 5.5% ↑
한전 1조2천억·한국첨단소재 191% 급등
투자자 거래대금 8조4천억으로 4.2% ↑

지난 4월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4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전력의 주가 상승과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등 복합적인 호재가 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을 끌어올리고 있다.

12일 코스닥시장분부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6년 4월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역 상장사 30곳의 시가총액은 40조5천222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5.5% (2조1천139억) 증가한 수치다.

전체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비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0.7%로 전월 대비

0.1%p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소재 기업의 시가총액은 4조462억으로 전월보다 6.1% 늘었으며, 전남은 36조4천700억으로 5.4% 증가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승의 주역은 지역 대장주인 한국전력이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1조2천197억이 늘어나며 지역 전체 시총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전력 외에도 한전KPS(3천159억 ↑)와 대한조선(1천464억 ↑)이 시총 증가액 상위권을 차지했다.

시가총액 상승률은 1위 부국철강(45.8% ↑), 2위 금호건설(19.8% ↑), 3위 DSR제강(15.6% ↑)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광주 소재 한국첨단소재는 시가총액 증가율이 191.1%에 달해 지역 내 압도적인 1위를 기록

했다. 이어 대신정보통신(23.0%)과 오이솔루션(18.3%) 등 IT·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AI 수요 증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실적 개선 전망이 확산되면서 관련 업종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도 활발했다. 4월 광주·전남 투자자 거래대금은 8조4천633억으로 전월 대비 4.2% (3천431억)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전월보다 17.8% 급증한 2조7천315억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다.

반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5조7천317억으로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한편, 4월 코스피 지수는 중동 정세의 완화 기대감과 미·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쟁 이후 한 달여 만에 6,000선을 회복, 전월 대비 30.6% 상승한 6,596.87p로 마감했다. 기관은 한 달 만에, 외국인도 석 달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며 상승세를 시현했다. /임재만 기자

파티 즐기되 출구 근처서 지켜봐야

주간 증시 전망



김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5월6일~5월12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10% 상승, 코스닥은 3%가량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어느새 8,000pt를 목전에 두게 되었고 그 앞에서 개인은 20만원 순매수, 외국인은 19만원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수급상 개인들의 포도현상에 따른 무조건적인 매수세와 외국인의 일단 현금화하고 보자는 매도세가 부딪힌 한 주였다.

하지만 미국의 10년 물 금리가 4.4%대를 재차 돌파했고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등 투심을 악화시킬 요인들도 충분히 산재해 있어 이제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5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는 대만을 제치고 전 세계 6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게 되었다.

현재 약 4.75조 달러로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게 이제야 제 가치를 찾고 있다고 본다.

한 주간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가파른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코스닥의 소외 현상은 지속 심화되며 쏠림 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 실적 호조와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지속 기대가 메모리 초강세로 이어지며 5월6일 단숨에 7,000선을 넘어섰고, 5월7일에는 외국인이 약 7조원을 순매도(2000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 했음에도 개인/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7,400pt, 5월 8,11일에도 외국인 매도세를 뚫고 급등 지속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개인 고객들을 상대하는 증권업 최전선에 있으면서 최근 떠올려지는 단어는 조바심이다.

결국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 삼성전자/하이닉스를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은 코스피 7000, 8000 시대에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 아직도 싸다는 뉴스들과 전망 기사에 일단 매수를 하고 보자는 분들이 많다.

이제는 슬슬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AI데이터센터 붐을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2000년대 닷컴 버블과 1840년대 철도 버블 정도 뺄 수 있다.

닷컴버블과 철도버블 둘 다 금융버블로 보기는 어렵고, 버블 붕괴 후 인프라가 남아 생산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착안(?) 버블이었다.

이런 AI 데이터센터 붐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는데 피크 때 철도 투자는 GDP의 6%가량이었고 닷컴 버블 당시 미국의 정보처리장비/R&D 투자 규모는 GDP의 4.9%였다(2000년 3Q).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7천200억 달러인데 현재 미국 GDP의 2.2%로 빅테크의 기업들의 투자와 정부 지원까지 감안할 때 GDP의 3~4%로 추정된다.

철도버블의 절반, 닷컴버블 당시의 70%로 볼 수 있고 지금 속도라면 내년 중순이면 닷컴버블 당시 투자 비중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의 상승을 철도버블/닷컴버블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모두 인간의 편리를 위해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속에는 항상 풀아가는 부분이 존재했다.

물론 반도체/AI 관련주를 당장 다 매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절대 아니다.

AI 투자 사이클은 과거보다 더 강하고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유동성은 미국이나 국내나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을 향한 베행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탐욕 속에는 버블이 있었고 더군다나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사이클 상단이 존재한다. 작년 연말 이란 전쟁 이전에도 있었던 말이지만 파티는 즐기되 출구 근처에서 파티장을 봐야 할 것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에 탄원서 69만8천357부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 종합건설업 생존권 수호 탄원서 제출

전문업계 이익 이기주의 강력 반대
"상호시장 개방 예정대로 이행해야"

대한건설협회(건협)는 12일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해 광주시회 황인일 회장, 전남도회 박경재 회장 등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종합건설업계의 현 위기 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지실 수 있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다.

건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

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건설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매우 더딘 상황"이라며 "전문건설업계가 그간에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전문공사금액과 기한을 또 다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익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건협은 특히 "2018년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업역간 갈등 해소 위해 2021년에 종합과 전문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된 바 있다"면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문

업체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자, 전문업체는 다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종합건설업계 시·도회장으로 구성된 국토부 방문단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면담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해 추진해 온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재만 기자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하늘아래 단 하나의 터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법당형 봉안당 시스템 해원정사 VIP추모원은

- 1 편리한 접근성
광주광역시 도심 동구에 위치하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2 명품안치단
극락전 VIP안치단은 고인이 유품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더 넓고 화려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 3 극락전VIP추모관
내부에서 골고루 자연재광이 되도록 설계 하였고, 한은-한시스템으로 고인을 쾌적하게 모십니다.
- 4 해원정사 추모원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
- 매년 가을에 추모산사용익회 개최
- 해원정사 추모원에 모시는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스님께서 매일 기도를 해드립니다.
- 매월 음력18일 지장재와 백중, 구정, 추석 등 매년 15회 합동제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 추모관은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보안은 5중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프리미엄 봉안당 지금 준비가 가장 현명 10년후면 더 비싸집니다. 봉안당은 부동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미리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VIP 가격표 (관리비 별도)

개인 단	400백만원 ~
부부 단	800백만원 ~ 2,400백만원

광주광역시 동구 분산길 100 www.haewonjungsa.com 대표전화 | 062-234-4576